

소 속	홍보실		
전화번호	052-216-2225,2229	팩 스	052-216-5907
보도일시	배포즉시	배포일시	2015년 9 월 24 일 오전 시

## 한국석유공사, 국가신용등급 상향에 힘입어 6억불 규모 해외채권 저금리 발행 성공

- 본격적인 글로벌 금리상승에 대비한 장기채권 선제발행으로 이자비용 지출 규모 축소 효과 -
- 공기업 및 민간기업을 발행의 저금리 벤치마크 수립 및 자금조달비용 절감효과 기대 -

- 한국석유공사(사장 서문규)는 9월 23일 새벽, 6억불(USD) 규모 10년 만기 글로벌 채권을 표면금리 3.25%에 성공적으로 발행하였다.
- 금번 발행은 지난주 S&P의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이후 최초로 발행된 한국물 글로벌 채권의 발행으로서, 불확실한 세계경제 전망으로 여타 국가 발행물 가산금리가 확대되는 것과는 반대로 신용등급 상향 조정으로 한국물 가산금리가 축소되는 국제금융시장 상황을 활용하였다.
  - 실제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아시아 iTraxx IG지수가 약10bp 상승하는 가운데 서도 한국CDS(신용부도스왑 Credit Default Swap)프리미엄은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에 힘입어 오히려 1bp 하락했고 한국 달러물 유통스프레드도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.
    - \* 9월15일-9월21일, 아시아 iTraxx IG지수 136.5bp→146bp, 한국 CDS 5년물 66bp→65bp
- 공사는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으로 조성된 국제금융시장의 한국경제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당초 5억불 발행 목표에서 6억불로 증액 발행하는데 성공하였다.
  - 아울러, 일반적으로 미국 국내채권들이 10bp 이상 NIP(신규발행 프리미엄 New Issuance Premium)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공사의 기발행 채권의 유통금리(미국채 10년물 대비 120bp)보다 5bp 낮은 115bp로 발행하였다.

- 이번 발행으로 공사는 본격적인 글로벌 금리 상승에 대비하여 10년물 장기 채권을 선제 발행함으로써, 이자비용 지출 규모를 축소하는 효과도 얻게 되었다.
- 또한, 공사의 성공적인 글로벌 채권 발행으로 향후 공기업 및 민간기업물 발행의 저금리 벤치마크를 수립, 전반적인 한국계 기관 외자 조달 비용을 절감시키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.
- 한편, 본 채권은 110여개의 기관투자자로부터 채권발행금액의 약 2.8배수 수준인 총 17억불 규모의 주문이 접수되었고, 투자자별 배분은 보험사 및 연기금 56%, 펀드 및 자산운용사 25%, 은행 및 기타 19%이다.